

멸종위기 닭과 오리를 보호하라

- 과제명 : 가금류 멸종위험 방지를 위한 중복보존체계 구축
- 담 당 :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연성훈 063-620-3534

세 번의 소독을 거쳐야 '이들'을 만날 수 있다

가축 종자개량을 위해서는 유전자원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. 특히 개체가 크게 줄어 멸종위기에 있는 재래닭의 보존은 긴박한 일이다.

우리 원 가축유전자원시험장은 우리나라 재래닭 등 국내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가축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중복보존축사를 마련했다. 지난 2006년부터 4년간의 공사 끝에 준공한 중복보존축사는 계사 4개 동과 오리사 1개 동으로 닭 28계통 4,200마리와 오리 2계통 600마리를 보존할 수 있다. 질병 유입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세 차례의 소독 절차를 거쳐야만 가축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.

국내에 조류인플루엔자(AI) 등이 발생하면 연산오כל게, 재래닭 등을 일시적으로 분산시켜 보존하는 일이 몇 차례 있었으나 적절한 방법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. 이에 비해 중복보존은 유전자원의 다양성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는 사전대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.



멸종위기에 처한 가축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마련한 중복보존축사의 긴꼬리닭과 흑색계를 재래닭